

조선총독부 초등국사교과서의 고대사 서술에 대한 일고찰*

송원범**

swb7906@hotmail.com

Contents

- I. 머리말
- II. 최근 한일 간의 정서
- III. 총독부역사교과서의 대강
- IV. 총독부역사교과서(『初等國史 第6學年』)의 분석
-古代를 중심으로-
- V. 맺음말-전체의 분석 개관에 대신하여

I. 머리말

금년은 광복(光復), 해방(解放) 70주년이자 분단(分斷) 70년이 되는 해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의 해이기도 하다.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는 그 중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고자 '사람·문화·교육'을 세 가지 키워드로 삼아, 1월 9일(금)과 10일(토) 양일간에 걸쳐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동계방학 중의 주말임에도 많은 이들이 학술심포지엄의 장(본교 100주년기념관, 본 연구센터 원형강의실)을 찾아 주고, 또 일부 매스컴이 높은 관심을 나타낸 것은 망외의 일이었다. 이는 작금의 한일관계가 1965년의 국교정상화 이후 가장 좋지 않다는 세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외교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일반대중의 정서가 배경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본고는 2007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KRF-2007-362-A00019)이다.

**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HK교수

특히 10일 국제학술심포지엄의 제4부 말미에서는 한일 간의 '역사교육'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있었다.

먼저 일본 리쓰메이칸(立命館)대학의 가쓰라지마 노부유키(桂島宣弘) 교수가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를 위해-한일기본조약체결 50년 후의 역사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¹⁾ 씨에 의하면, '메이지(明治) 유신' 이래 이어져 온 '탈아입구(脱亜入歐)'가 1945년의 패전에 의해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한다. 또한 씨는 전후에 곧바로 일본 내부가 친미파로 바뀐 것은 '탈아입구'라는 풍토가 원래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결과 현재의 일본교과서 속의 전후(戰後)에 관한 서술이 미국과 서양과의 관계를 기축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전후 일본(정부·국민)이 아시아와의 관계를 망각하게 되면서 근현대사 전체를 반성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방해를 받았다고 한다. 결국 이로 인해 한국·중국과 많은 알력이 생겼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써, 일국사·자국사와 대치되는 트랜스 내셔널한 시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본인은,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를 포함하는 해방 70년에 무게를 더 두고자 했다. 왜냐하면 과연 한일 두 나라가 '역사교육'의 면에서 진정한 의미의 '해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인지 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조선총독부의 역사교과서는 중요한 핵심 소재가 될 만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일 간에 역사교육이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역사교과서문제가 아닐까? 역사교과서문제는 한일 간의 3대 현안 과제 중의 하나라 말해지는데, 3대 현안 과제라 하면 역사교과서문제 이외에도 위안부문제, 독도문제가 들어진다. 그 어느 것 하나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역사교과서문제의 대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교과서문제의 발단은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2년 6월, 교과서 검정을 발단으로 이른바 '교과서문제'가 국제문제화 되자 당시의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내각관방장관에 의한 담화와 함께 '근린제

1)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국제학술심포지움 자료집(2015), 『한일국교수립50년: 사람·교육·문화』 참조

국조항²⁾이 추가되었다. 이후 일본 매스컴이나 역사교과서에는 ‘위안부문제’로 대표되는 전쟁 중의 범죄 행위가 주요 기사로 실리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새로운 반발에 부딪치게 된다. 이는 바로 1997년 1월에 결성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줄여서 ‘새역모’로 표기)’을 중심으로 ‘자학사관’이나 ‘수정주의 사관’이라고 불리는 일단의 움직임을 낳았다.³⁾

근대일본은 1890년에 ‘교육칙어’를 반포한다.⁴⁾ 그것이 패전 후 폐지되면서 ‘평화헌법’에 기초한 ‘교육기본법’ 제정이 1947년에 있었다. 그런데 이 법이 60년 만인 2006년에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2월에 개정 고시된 것이 바로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이며, 또 이와 연계하여 같은 해 7월에 ‘해설서’가 공포되었다.

이 법의 개정을 주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국가를 유지하는데 어울리는 국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그 결과 나라를 사랑하는 태도가 교육의 목표”, 애국심에 대한 평가에 대해 “일본의 전통과 문화를 배우는 자세와 태도는 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개정 전의 교육 가치가 진리와 정의, 개인 가치, 근로와 책임, 자주적 정신이었으며, 구법이 전쟁에 대한 책임과 전쟁 범죄를 되풀이말자는 인식에서 만들어졌다면, 개정된 법은 국가에의 봉사의 강요라는 복고적 내셔널리즘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

모두에서 밝힌 것처럼, 금년은 광복과 해방, 분단 또는 국교정상화의 어느 측면에서도 주시할만한 해이다. 하지만 역사교과서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진정

2) 교과서 검정 시에 근린 아시아 제국과의 관계에서 근현대 역사적 사상(事象)의 취급에 있어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관점에서 필요한 배려.

3) 1990년대 중반부터 기존의 일본역사교과서, 특히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가 필요 이상으로 일본을 깎아내리는 ‘자학사관’에 근거해 만들어졌다고 비판하면서, 종래의 ‘도교재판사관’이나 ‘사회주의사관’에 대체하는 ‘자유주의사관’에 근거하여 아동들이 일본인으로서의 자신과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교과서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움직임.

4) 본문은 모두 315자로 내용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교육에 관한 칙어」라 하여 국민도덕의 기본을 보이고 교육의 근본이념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으로 1890년 10월 30일에 발표되었다. 국가 시작 이래 역대천황이 도덕 형성에 힘쓰고, 국민이 충의와 효행의 길에 일치단결하는 것을 「국체의 정화」라고 하여, 이를 교육의 근원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는 나중 황도주의 교육을 통해 형성된 편협한 국가관과 세계관을 낳아 군국주의와 제국주의 사상을 뒷받침하는 사유를 체계화하게 되었다고 비판받는다. 이권희(2014), 『메이지(明治) 전기 교육 사상에 관한 일고찰』, 『일본사상』27, pp214-215 참조.

5) 송완범(2011), 『모색하는 2010년』, 『저팬리뷰2010』, 도서출판 문, pp174-178 참조.

한 의미의 ‘해방’을 맞고 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⁶⁾

그래서 본고에서는 조선총독부가 만들어 보급한 조선총독부역사교과서를 번역하고 분석한 경험⁷⁾을 바탕으로, 먼저 제2장에서는 최근의 한일 간의 복잡한 정서의 실태를 보일 것이다. 이는 해방 후 70년이 되었음에도 한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호 인식의 갭이 큼을 확인하는 현재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조선총독부역사교과서의 대강을 살필 것이다. 제4장에서는 조선총독부역사교과서의 전체상을 다루는 것은 지면상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기에, 필자의 전공인 고대편을 중심으로 개별적 사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전체를 간단히 요약하기로 한다.

이상의 작업을 통해 아직도 해결이 난망한 한일 간의 역사교과서문제에 조금이라도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II. 최근 한일 간의 정서

한일 관계가 복잡해지는 요인 중의 하나는 양국 내부의 국내적 문제를 국내의 문제로 한정하지 못하고, 이를 국제적 문제와 뒤섞어 처리하는 탓이 그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예를 들면 한일 양국 내에 어떤 문제가 국내적인 사정에 의해 생겨나지만,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제문제로 변질되는 사례가 많은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정치세력간의 역학관계의 조정이나 국민여론을 희석시키는 사례로 한일관계가 종종 이용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일본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친밀도는 최악이다. 일

6) 다시 말해, 해방 70년을 맞아 역사교과서문제에 있어 식민지배의 심장부였던 조선총독부가 구현하고자 했던 조선총독부역사교과서의 실상과 내포된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파헤치고 있는지, 더 나아가 극복해내고 있는지 말이다. 근자의 국가기관(한국연구재단)에서 공고한 조선사편수회가 만든 『조선사』의 번역과 해제사업의 선정 과정을 봐도 그렇고, 일부 언론에 편승한 ‘임나일본부설’의 이해를 둘러싼 비학문적인 논의 과정을 보아도, 우리 사회의 역사에 대한 논의 수준은 아직 완전한 ‘해방’ 단계에까지는 미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7) 자료집 『조선총독부역사교과서분석』 I(2009) · II(2010) · III(2011) · IV(2012) · V(2013), 동북아역사재단 참조

본 국민의 66.4%가 '한국에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⁸⁾ 역대 최고수치인 이 결과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관계를 상징한다. 일본내각부가 2014년 12월 20일에 발표한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에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이는 전체 응답자 중 66.4%로 지난해에 비해 8.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일본 내각부는 1978년부터 해마다 같은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사상 최고였다. 한국에 친밀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이는 31.5%로 지난해 조사에 비해서 9.2%포인트 줄었다. 1999년 이후 한동안은 '한국에 친밀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이가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자보다 많았지만, 2012년부터 양자가 역전됐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은 전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친밀감이 낮아진 배경에는 좁혀지지 않는 역사 인식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시(時事)통신」은 분석했다.⁹⁾

한편, 위의 조사와 멀지 않은 시기에 조사된 해방 이후의 한일관계에 대한 평가와 한국의 일본인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보면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¹⁰⁾ 먼저 전자에 대한 평가는 '별로 원만하지 않았다'가 24.5%로 가장 많고, '전혀 원만하지 않았다'도 18.1%나 됐다. 반면 '매우 원만했다'는 1.9%, '대체로 원만했다'는 22.8%에 머물렀다. 부정적 의견이 42.6%로 긍정적 의견 24.7%보다 훨씬 많다. 후자를 보면, '호감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비율(36.9%)이 '호감도 있고 관심도 있다'는 비율(13.0%)보다 3배 가까이 많다. 전체적으로 비호감 의견(69.5%)이 호감 의견(25.9%)보다 43.6% 포인트 높고, 무관심 의견(49.8%)이 관심 의견(45.6%)보다 많다. 호감이 안 가는 이유로서는 '일본 사회 일부에서의 우경화 움직임 때문에(46.2%)'가 가장 많았고, '과거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 때문에(33.1%)'가 뒤를 이었다. 결국 한국인들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 해결(57.1%)'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한일 양국의 국민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상호인식이 악화된 배

8) 한겨레 2014.12.21; 중앙일보 2014.12.22. 참조.

9) 日本内閣府世論調査 <http://survey.gov-online.go.jp/h26/h26-gaiko/2-1.html> 조사일 2014.12.24.

10) 서울신문과 에이스리서치 조사, 서울신문 2015. 01. 02.

경에는 역사 인식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역사 인식의 차가 생기는 원인 중에 역사교과서 문제가 있는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한일 간의 역사교과서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그 연원은 조선총독부역사교과서에 있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해방 70년임에도 한일 양국은 조선총독부역사교과서가 구현하고자 했던 자타(自他)의 구별 그리고 지배와 피지배의 논리구조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럼 다음에는 조선총독부역사교과서의 실제 분석의 사례로 들어가 보자. 다만, 총독부의 역사교과서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조선총독부교과서총서(역사편)』¹¹⁾에 수록된 소학교 역사교과서를 대상으로 한다.

Ⅲ. 총독부역사교과서의 대강

본인을 포함하여 조선총독부역사교과서 분석 팀(4인으로 구성되어 고대, 중세, 근세, 근대를 각각 담당)은 2009년부터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역사교과서 분석을 시작하여,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이어, 총독부가 편찬한 역사교과서를 번역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했다. 이 역사교과서들은 식민지 조선 아동들이 다니는 보통학교에서 사용되었다.¹²⁾

2009년 분석한 『심상소학교사 보충교재』(一·二)권 및 『심상소학교일본역사 보충교재 교수참고서』(一·二)는, '3·1 운동' 이후, 민족교육에 대한 조선 민중의 여론을 반영하여 발간한 것으로, 『심상소학교사』(상·하)가 일본 역사만을 가르친다는 불만을 달래기 위하여 조선사 내용을 기술한 것이었다. 따라서 비록 보충교재의 형태를 띠기는 하였으나,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유일한 조선사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분석한 『보통학교국사 아동용(상·하)』 및 『조선사력보충교재』는,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¹³⁾이 발표되고, 내지연장주의에 입각한 문화정치를 표

11) 장신 편(2005), 청운 참조

12) 자료집 『조선총독부역사교과서분석』V(2013), 동북아역사재단, pp3-4 참조

13) 제2차 조선교육령 시행기는, 1922년 2월 4일부터 1938년 3월 2일까지이다. 참고로 제1차 조

방하여 보통학교를 6년으로 늘려, 일본인 대상인 소학교와 조선인이 다니는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동일하게 하고, 일본인과 조선인의 공학을 추진하면서 편찬된 교재였다. 즉 조선인과 일본인이 하나가 된 이상, 조선 역사와 일본 역사를 구분하여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논리 하에, 『심상소학일본역사 보충교재』의 내용의 일부를 『심상소학국사』의 중간 중간에 삽입하는 교재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보통학교 국사 아동용』인 것이다. 이때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의 불만을 고려하여 『조선사력보충교재』를 편찬하여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당연히 그 내용은 『심상소학국사 보충교재』보다 훨씬 간략한 것이었다.

2011년에는 『보통학교국사(권1, 2)』와 『초등국사(권1, 2)』의 번역과 분석을 행하였다. 『보통학교국사(권1, 2)』는 1933년에 개정된 교과서로 조선사를 일본의 지방사로 간주하여 앞서의 『보통학교 국사 아동용』보다는 조선사의 분량을 늘였으나, 대신에 『보충교재』는 만들지 않았다. 이는 점차 조선사가 일본사의 일부로 다루어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초등국사(권1, 2)』는 1938년에 제3차 조선교육령¹⁴⁾이 발표되어 내선일체에 입각한 강력한 동화정책이 시행되면서 나타난 교과서였다. 이때에는 조선인 교육기관과 일본인 교육기관의 명칭이 통일되어 보통학교를 소학교로 개칭하였으며, 조선어교육은 필수과목에서 수의과목으로 변하였다. 역사교과서도 1933년 판 『보통학교국사』를 개정하여 『초등국사』로 바꾸고 일본학생들이나 조선학생들이 같은 교과서로 수업을 하게 된 것이다.

2012년에 분석한 제3, 4차 교육령 시기의 『초등국사(제5학년)』(1940년판과 1944년판)은, 1941년에 일본 본국에서 국민학교령이 공포되어, 소학교의 명칭이 국민학교로 변경되었으며, 1943년 제4차 조선교육령(칙령113호) 및 국민학교령의 규정에 따라 조선어 및 조선사 교육은 완전히 폐지되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교과서였다. 따라서 이들 교과서에서 조선사 관련 내용은 찾기 어렵고, 내선일체나 황국신민화 교육이 어떠한 이념적 틀을 가지고 진행되어 가는지 그

선교육령 시기는 1911년 8월 22일부터 1922년 2월 3일까지이다. 이종국(2008), 『한국의 교과서 변천사-근대 교과서 100년, 다시 새 세기를 넘어-』,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p81-83 참조.
14) 제3차 조선교육령 시행기는 1938년 3월 3일부터 1943년 3월 30일까지이다. 이종국(2008), 『한국의 교과서 변천사-근대 교과서 100년, 다시 새 세기를 넘어-』,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p83-85 참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국체관념의 확대가 주목된다. 이는 기존의 국체관념이 일국사 중심의 편협하고 고루한 국사관을 계승하였다는 비판에서 출발하여, 일본사의 진전 중에서 세계적 보편성을 파악하여 서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일본의 팽창(침략)을 세계사의 흐름으로 설정하고 그 정당성을 교육하고자 한 것이다. 조선사에 대해서도, 그 이전에는 '조선사력의 대요를 가르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때부터는 '내선일체의 유래사실에 유의하여 가르친다'고 하여 내선일체의 역사적 필연성을 알고 내선일체의 정신을 체득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사실들만 채택한 것이 특징이었다.

2013년에는 이전 작업의 연장으로 6학년 교재의 분석 작업을 했다. 원래는 5학년 교재의 분석을 끝으로 총독부 교과서 분석을 일단락 하려고 하였지만, 6학년 교재와 5학년 교재의 차이가 크고, 대외인식이 뚜렷이 나타나는 특색이 있기 때문에, 따로 분석하기로 하였다. 1941년에 편찬된 『초등국사(6학년)』과 1944년에 편찬된 『초등국사(6학년)』에 대한 분석 작업에는 기존 작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초등국사 제6학년 교사용』 지도서, 및 『편찬취의서』가 이용되었다.

이상을 총괄하여 조선총독부시기에 간행된 교과서의 사용자와 사용 시기, 그리고 본 작업에서 사용된 교과서를 도표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⁵⁾

【표1: 조선총독부 간행 역사교과서의 대강】

		소학교 (일본학생)	보통학교 (조선학생중심)	비고
제1차 조선교육령 시기	1910-20	심상소학일본역사	심상소학일본역사 + (비합법적 조선사교육)	
	1921-22	심상소학국사	심상소학국사 + 보충교재	(2009년 번역·분석)
제2차 조선교육령 시기	1923-32		보통학교국사야동용 + 조선사력보충교재	*1926년 개정(52,53과) (2010년 번역·분석)
	1933-37	보통학교국사		
제3차 조선교육령 시기	1938-40	초등국사(권1, 2) (→1933년판 보통학교국사를 개정)		(2011년 번역·분석) *1939년 개정(50과 뒷부분) 포함

15) 자료집 『조선총독부역사교과서분석』V(2013), 동북아역사재단 p5 참조

	1941-43	초등국사 제5학년, 초등국사 제6학년	2012년 제5학년 작업 2013년 제6학년 작업
제4차 조선교육령 시기	1943-45	초등국사 제5학년 초등국사 제6학년	

다음으로는 2013년도의 분석(1941년의 『초등국사(6학년)』과 1944년의 『초등국사(6학년)』)한 개요 부분을 적시하여 대강을 살펴보자.¹⁶⁾

일제는 1941년 조선과 일본에서 동시에 국민학교령을 발표하였다.¹⁷⁾ 이 학교령은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교육을 통해 황국신민의 정신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민학교령 교과서 발행 규정은 기본적으로는 1938년에 발표된 제3차 조선교육령을 따랐으나, 조선총독부가 만든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일본 문부성이 간행한 교과서를 사용할 때에도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게 하였으며, 교과용 보조 교재로 영화나 방송을 활용할 때에도 조선총독이 지정한 것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총독부에 의한 교과서 통제를 한층 강화한 것이었다.

1943년에 발표된 제4차 조선교육령¹⁸⁾은 학교교육을 전시체제에 적합하도록 개편하고 황국신민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1944년에는 『초등국사』개정판이 간행 보급되었다. 교과서의 내용은 완전히 천황 중심, 일본사 중심으로 정비되었고 조선사 내용은 내선일체를 위한 것 외에는 모두 삭제되었다.

『초등국사(제5학년)』과 『초등국사(제6학년)』의 내용은 많이 다르다. 두 『초등국사』의 목록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¹⁹⁾

16) 자료집 『조선총독부역사교과서분석』 V(2013), 동북아역사재단 pp5-7 참조.

17) 1941년 3월 31일 공포된 ‘국민학교령(일제칙령 제148호)’은 종래의 소학교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1906년 8월 27일에 공포된 ‘보통학교령’에 의해 소학교가 보통학교로 바뀌었으나, 보통학교는 일본인 자녀들이 다니는 탓으로 구별 짓기 위해 소학교라는 명칭은 아직 남아있었다. 그러다가 1926년 7월 1일 공포된 ‘소학교령’에 의해 소학교, 보통학교 모두 심상소학교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1941년에 들어 심상소학교가 국민학교로 명칭이 바뀌게 된 것이다. 국민학교는 해방 후에도 한참 사용되다가 1995년 12월 29일의 교육법 개정에 의해 1996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른다. 이종국(2008), 『한국의 교과서 변천사-근대 교과서 100년, 다시 새 세기를 넘어-』,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85 참조.

18) 제4차 조선교육령 시행기는 1943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이다. 이종국(2008), 『한국의 교과서 변천사-근대 교과서 100년, 다시 새 세기를 넘어-』,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p86-87 참조.

【표2: 『초등국사』5, 6학년용의 목록 비교】

	초등국사5학년 (1940)	초등국사6학년 (1941)	초등국사5학년 (1944)	초등국사6학년 (1944)
<권두>	황실계보	황실계보	황실계보	황실계보
제1과	국체	황국의 목적	국체	황국의 목적
제2과	국가의 시작	황실의 은총	국가의 시작	황실의 은총
제3과	정벌	해외의 정치(1)	정벌	해외의 정치(1)
제4과	정치	해외의 정치(2)	정치	해외의 정치(2)
제5과	신의 보호	국가의 교제(1)	신의 보호	국가의 교제(1)
제6과	세상의 발전	국가의 교제(2)	세상의 발전	일본의 변영
제7과	개신의 기초	제도의 정비(1)	개신의 기초	博多의 변영
제8과	개신의 정치	제도의 정비(2)	개신의 정치	신국의 깨어남
제9과	수도의 변영	해외로의 왕래(1)	수도의 변영	동아의 왕래(1)
제10과	수도의 변영(2)	해외로의 왕래(2)	수도의 변영(2)	동아의 왕래(2)
제11과	국풍의 나타남	신국의 자랑	무가의 성장(1)	세계의 변화
제12과	무가의 성장	해외 발전의 기세	무가의 성장(2)	영웅의 뜻
제13과	무사의 마음	세계의 변화(1)	신위(神威)가 나타남	국위의 빛남
제14과	친정의 뜻	세계의 변화(2)	일신의 정치	무역의 번성
제15과	세상의 변화	영웅의 뜻	세상의 혼란	남진의 선구
제16과	근왕의 충심	국위의 빛남	근왕의 충심	신국의 방어
제17과	위광이 빛남	무역의 번성	태평의 기초	발전의 기반
제18과	태평의 은혜	신국의 방어	태평의 은혜	국민의 자각(1)
제19과	국가의 모습	발전의 기초	일신의 기초	국민의 자각(2)
제20과	일신의 기초	국민의 자각(1)	일신의 정치(1)	攘夷의 진심
제21과	일신의 정치1	국민의 자각(2)	일신의 정치(2)	세계옹비의 기반
제22과	일신의 정치2	동아의 방어(1)	헌법의 확정	동아의 방어(1)
제23과	헌법의 확정	동아의 방어(2)	국체의 빛남(1)	동아의 방어(2)
제24과	국체의 빛남1	동아의 방어(3)	국체의 빛남(2)	내선일체의 진심
제25과	국체의 빛남2	동아의 방비		약진의 영예
제26과		약진의 영예		세계의 경쟁
제27과		세계의 경쟁		동아 안정의 맹세
제28과		국력의 나타남(1)		공영의 기쁨
제29과		국력의 나타남(2)		
제30과		대국민의 마음가짐		
	연대표	연대표	연대표	연대표

『초등국사(5학년)』과 『초등국사(6학년)』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수업 단계의 차이에 따른 당연한 것이겠지만, 특히 『초등국사(6학년)』의 내용은 대외관계사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19) 자료집 『조선총독부역사교과서분석』V(2013), 동북아역사재단, p.6 참조.

이는 일본 국체의 대외확장을 세계적 보편성으로 파악하고 있음이 그 특징이다. 교과서에 나타난 '황국의 사명'이라는 표현은 바로 일본 국체의 대외확장 즉 침략이라는 표현에 다름 아니다. 국체사상 즉 천황제 이데올로기는 이 교과서에서 정점을 보이며, 이에 따라서 기존의 시대관, 공무(公武)대립적인 다원적인 국사관, 권선징악주의의 역사관 등을 과감히 비판하고, 포기하고 있다. 그 중 중요한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시대관 즉 「전국시대」, 「에도시대」 등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국사의 중심 기조인 「국체」에 입각한 인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교과서에서는 「태평의 기초」 등의 표현으로 제목이 설정되고 있고, 공가와 무가의 대립 등은 사라지고 철저히 국체-천황 중심의 역사가 전개되고 있다.

둘째, 조선사에 대한 취급이 변하였다. 그 이전까지는 '조선사력의 대요를 가르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것이 조선사를 따로 가르치는 이유가 되었다고 비판하고, 새로운 교과서에서는 일본사의 진전에 조선 지방이 어떠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 외에는 모두 삭제되었다. 즉 내선일체의 역사적 필연성을 알고 내선일체의 정신을 체득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사실들만 채택한 것이다. 특히 임진왜란과 조선합병에 대해서 상술하여 내선일체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현재의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과정으로 파악한 것은 대표적이다. 그리하여 현재 대동아공영권 건설에 따라서 조선 지방이 얼마나 중요하게 되었는지, 또한 조선이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지를 학생들이 감동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조선에서의 국사교육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셋째, 외국관계의 내용이 매우 많아졌다. 이는 일본의 입장에서 세계의 모든 역사적 사실을 파악한다는 입장이다. 즉 일본 국체의 대외팽창이 시대적 사명 혹은 황국의 사명이라는 인식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의 대외팽창을 방해하는 모든 대외관계를 비난하고 일본의 입장에서 정리-왜곡하고 있음은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장치라 말할 수 있다.

이상의 편찬취의를 살펴볼 때, 『초등국사(6학년)』 교재의 분석은 일본의 자국 인식과 타국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²⁰⁾

20) 자료집 『조선총독부역사교과서분석』V(2013), 동북아역사재단 p7 참조.

IV. 총독부역사교과서(『初等國史 第6學年』)의 분석

-古代를 중심으로-

다음은 『조선총독부교과서총서(역사편) 제6권』(이후 [총서 제6권]이라 한다.)의 번역과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다만 이하의 작업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아직 한국학계가 총독부역사교과서의 전모를 제대로 확인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초적 작업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만큼 선행 연구가 정치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본 연구는 본인을 포함하여 조선총독부역사교과서 분석 팀이 동북아역사재단의 협력을 얻어 총독부의 초등역사교과서를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5년 동안 번역하고 분석한 자료집에 크게 의존한 것이다. 이 점 미리 양해를 구한다.

[총서 제6권]에는 모두 네 가지의 내용이 함께 하고 있는데, 『초등국사 제6학년』교과서(1941년), 『초등국사편찬취의서』(1941년), 『초등국사 제6학년 교사용』(1943년), 『초등국사 제6학년』교과서(1944년) 등이다.²¹⁾

2012년도에 분석한 『조선총독부교과서총서(역사편) 제5권』²²⁾의 『초등국사 제5학년』의 1940년판과 1944년판 교과서와 같이 [총서 제6권]의 6학년 교과서도 제3, 4차 교육령 시기 하의 산물이다. 이 시기는 1941년 3월 31일 일본 본국에서 국민학교령(일제칙령 제148호) 공포와 함께 심상소학교의 명칭이 국민학교로 변경되었고, 또 1943년 제4차 조선교육령 및 국민학교 규정에 따라 조선어 및 조선사 교육이 완전히 폐지된 암울한 때였다.

이 시대의 교과서들은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 교육이라는 이념적 틀 아래 국제관념의 확대가 특징이다. 이 무렵 일제는 1943년 3월 1일에 징병제 공포, 같은 해 4월 26일에 학도전시동원체제 확립요강, 역시 같은 해 8월 23일에 여자정신대근무령, 1944년 8월 28일에 학도근로령, 1945년 5월 22일에 전시교육령 등을 연달아 공포하고 있다.

이전의 조선총독부교과서가 조선어 계열은 물론 조선사 및 조선지리도 형식

21) 자료집 『조선총독부역사교과서분석』V(2013), 동북아역사재단 pp19-21 참조

22) 자료집 『조선총독부역사교과서분석』IV(2012), 동북아역사재단 참조

적이기는 하지만 수의과목으로 존속되어 있었던데 비해, 이 시기는 교과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 기존의 국제관념을 일국사 중심의 편협하고 고루한 국사관의 계승이라고 비판하면서, 일본의 팽창, 즉 침략을 세계사의 흐름으로 설정하고 그 정당성을 교육하고자 했다.

그 이전까지의 조선사에 대한 접근이 조선역사의 개요를 가르친다는 것이었다면, 제3/제4차 교육령 시기는 내선일체의 유래와 그 사실, 황국신민의 육성에 유의하여 가르친다고 하여, 내선일체의 역사적 필연성과 정신을 체득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사실들을 중심으로 모아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서 [총서 제6권]의 내용 구성을 보기 쉽게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3: [총서 제6권]의 내용 구성】

6권	책 명	출판연도	시대 분량
	초등국사 제6학년	1941	54(고대)/227(전체)
	초등국사편찬취의서	1941	
	초등국사 제6학년 교사용	1943	
	초등국사 제6학년	1944	50(고대)/288(전체)

위의 표1에 의하면 이 시기 6학년용의 [초등국사]는 그 이전의 교과서들의 고대사 분량에 비해 축소되고 있다. 그 이전 시기의 내용 비율이 전체의 30퍼센트를 넘고 있었다면, 이 시기의 6학년용 교과서는 20퍼센트 대에 머무르고 있다.

다음의 표2는 6학년용 [초등국사]의 목록을 비교한 것인데, 1941년의 6학년용 [초등국사]가 30과 중 8과가 고대사 부분이고, 1944년 6학년용 [초등국사]가 28과 중 6과가 고대사 부분이다.

【표4: 6학년용 초등국사(1941)와 동 초등국사(1944) 고대사 목차 비교】

	초등국사(1941)	초등국사(1944)
<권두>	만세일계(황실계보)	만세일계(황실계보)
제1과	황국의 목표	황국의 목표
제2과	황실의 은총	황실의 은총
제3과	해외의 정치(1)	해외의 정치(1)
제4과	해외의 정치(2)	해외의 정치(2)
제5과	나라의 교류(1)	나라의 시작
제6과	나라의 교류(2)	일본의 번영
제7과	제도의 정비(1)	
제8과	제도의 정비(2)	

다음으로는 6학년용 [초등국사편찬취의서]²³⁾와 [초등국사 제6학년 교사용]²⁴⁾에 대해 살펴보자. 이 두 자료에 따르면 [초등국사] 제6학년 편찬의 근본방침은 제5학년용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먼저 제5학년용의 편찬 취지를 반복적으로 숙독시키는 것이 좋다고 한다. 또한 제5학년용 [초등국사]가 일본 국사의 독자성을 이해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면, 제6학년용은 국사의 세계적 보편성을 명확히 하고, 황국의 역사적 사명을 자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6학년용 [초등국사]는 먼저, 황국의 이상 구현에 동반하는 국운이 상승하는 모습과 세계사상에서의 일본의 지위가 시대를 따라 향상 발전하는 모습을 알게 하고, 또한 동아 및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에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가를 알게 하며, 나아가 황국의 역사적 사명에 대한 자각을 심화시켜 대국민의 자질을 계발하는 데 힘쓰게 하자는 데 있다, 고 한다.

역시, 이번 6학년용 [초등국사]의 주안점도 국제관념의 명징, 국민성의 새로운 일관성의 강조, 엄정하고 온건한 비판력의 배양, 신시대에의 적응, 대외관계

23) 「초등국사편찬취의서」는, 近代日本教科書教授法資料集成『編纂趣意書』1, 2권(1982-83), 東京書籍 참조.

24) 「초등국사 제6학년 교사용」은, 총설에서 국민과과목(수신, 국어, 국사, 지리) 교과서의 특장을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국체의 정신을 명백히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황국의 길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 황국의 길을 몸으로 익혀 실천하여 한마음 한뜻의 즉, 억조일심(億兆一心)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다”라고 한다. 近代日本教科書教授法資料集成『教師用書』5-10권(1983), 東京書籍 참조.

교재의 중시, 교재배열의 쇄신, 삽화 및 도표류의 쇄신, 평이하고 간명한 문장 서술 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5학년용 [초등국사]와 대동소이하다.²⁵⁾

그런데 이와 같은 5학년 [초등국사]의 특성과 체제적 구성을 같이 하면서도 6학년용 초등국사(1941)과 초등국사(1944)는 다음의 두 가지 면에서 그 내용 변화가 보인다.

우선 첫 번째로, 1941년도와 1944년도 교과서 사이에는 한반도 관련 서술의 차가 보이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변화라 여겨진다. 왜냐하면 몇 년간 계속하고 있는 조선총독부역사교과서 분석 작업의 핵심이 총독부교과서에 보이는 한반도에 관한 인식의 변화이니만큼, 한반도에 관한 서술이 적어졌다 해도 어떻게 적어지고, 또 어떻게 멸절되어 갔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제의 막바지인 1941년도와 1944년도 6학년 [초등국사]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해외’와 ‘동아’라는 밖을 응시하는 시각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었다. 이는 다른 말로 일본이라는 자아와 밖이라는 타자를 강하게 인식한 결과이기에 중요하다. 이점도 역시 일본이 ‘제국’을 지향하고 외국에 대한 다발성 침략을 ‘해외’ 혹은 ‘동아’라고 타자화하면서, 침략에 다름 아닌 밖으로의 진출을 ‘대동아공영’이라는 미명 하에 포장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상의 전반적인 설명을 기초로 해서 이제부터는 6학년용 《초등국사》(1941)와 동 《초등국사》(1944)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기로 하자. 다만, 여기서 전시대를 모두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고대 부분을 중심으로 논을 전개해 가고자 한다.²⁶⁾

전자의 고대사 관련 부분이 모두 8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에 비해, 후자는 모두 6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차이는 먼저, 전자가 [나라의 교

25) 5학년 [초등국사]의 1940년도와 1944년도의 분석의 특징을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체’가 전자와 후자의 모두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고대사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교과서 만들 당시의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다. 둘째, 각 장의 내용에 고대사의 사실과 연계하여 현재의 서술을 보충하는 형태로 담고 있다. 셋째, 전자에 비해 후자의 서술이 작은 표제나 키워드를 내걸어 설명하고 있다. 넷째, 당연한 것이지만 전자보다 후자의 서술이 훨씬 군국주의 황국주의 이념에 대한 설명의 강도가 강하게 드러난다.

26) 이하의 서술은, 자료집 『조선총독부역사교과서분석』V(2013), 동북아역사재단 pp22-38 중 필요 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류]를 두 단원으로 나눈 것에 비해, 후자는 이를 합해 하나의 단원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자가 [제도의 정비]를 다시 두 단원으로 나누고 있는 것에 비해, 후자는 이를 다시 [일본의 변영]이라는 하나의 단원으로 통합하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난다.

먼저 한반도 관련 서술의 차이를 보자. 전자, 후자 공통으로 제1단원인 [황국의 목표]에는 한반도 관련 기사가 없다. 다시 말해 [황국의 목표]의 존재 의의는 1940년대 현재의 일본이 목표로 하는 가치와 이상을 나열한 것이기에 한반도 관련 기사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이다.

①황실의 은혜²⁷⁾

여기서는 전자와 후자의 기사가 거의 대동소이하다, 다만, 각각 전후 두 문장의 의도가 모순된다. 즉, 둘 다 “천황의 위엄이 바다를 건너 조선에서 빛나게 되었다”고 하면서 “왕래가 활발해져 발전된 문화가 수입되었다”고 한다. 결국, 고대 일본 세력이 바다를 건너 조선 땅을 장악했었다고 하는 내용을 역지스레 강조하려다 보니, 그로 인해 도리어 발달된 문화가 도리어 밖에서 들어오게 되었다는 논리적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②해외의 정치²⁸⁾

27) 1941; 규슈에서 이키(壹岐)와 쓰시마(對馬)로 건너가 조선으로 가고, 나아가 지나와 왕래하는 교통로가 가장 먼저 열려있었기에, 천황의 위엄은 우선 바다를 건너 조선에서 빛났습니다. 그래서 왕래는 더더욱 활발하게 되고 지나와 우리나라와의 교류가 시작되어, 여러 가지의 문화가 전해져, 점차 장점을 받아들여 우리나라의 문화는 발전해 갔습니다.

1944; 규슈에서 이키와 쓰시마 등을 건너 조선반도로 건너가고, 나아가 지나와 왕래하는 교통로가 가장 발달돼 있었기에 황위는 우선 바다를 건너 조선 지방에서 빛났습니다. 그래서 왕래는 더욱 활발하게 되고 이어 지나와 우리나라와의 교류가 열려 점차 발전된 문화가 수입되었습니다.

28) 1941; 옛날 조선에서는 남부에 한인이 북부에는 만주인이 살고, 서쪽에는 지나인이 남쪽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섞여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하천의 흐름을 따른 곳과 바다에 면한 지방에 마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남부는 기후도 좋고 땅의 힘도 비옥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개발되고, 금과 철 등이 산출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지나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천황의 위엄이 빛나 지금의 낙동강과 섬진강, 금강 유역에서는 황실의 은혜가 퍼져나갔습니다. 이 지방은 작은 나라들로 나누어져 있어, 지금의 김해(경상남도)에 있던 임나라는 나라가 중심이었기에, 임나라고 불리어졌습니다. 천황은 미코토모치라는 관리를 파견하시어 이 지방을 다스리시고, 나라들은 모두 황실을 따라 여러 공물을 바쳤습니다.

그 무렵 지금의 평안남·북도에서 남만주 지역까지는 지나인이 많이, 평양(평안남도)을 중심으로 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지나에서 일어난 한이 이를 공격하여 멸망시켰습니다. 그리하여 평양 언저리에는 한의 낙랑군이 설치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군에 왕래

[해외의 정치] 이 단원은, 戰前의 통설인 고대일본이 '임나일본부'라는 기관을 두고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었다고 하는 '임나일본부설'의 자세한 설명 그 자체이다. 양자가 모두 [해외의 정치](1)(2) 두 단원의 대부분을 4-6세기 고대일본과 한반도 삼국 관련 서술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는 역시 '해외'로의 침략의 전거가 된다고 믿는 역사적 사실로서, '임나일본부설'을 일본인만이 아니라, 한반도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주입시키려는 의도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의 식민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주박이 되었을 것이 틀림없다.

③나라의 교류(41)/나라의 시작(44)²⁹⁾

하는 경우가 많고, 중국에는 한의 서울과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나라와 조선, 지나와의 왕래가 활발하게 되어 더욱 깊은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후략)

1944: [임나의 정치] 신대의 스사노오노미코토(素戔鳴尊)는 다카마노하라(高天原)로부터 조선지방에 내려가서, 황실의 은혜를 넓히시는 근간을 만들었습니다. (후략) 황실의 은혜는 지금의 낙동강과 섬진강, 금강 유역부터 점차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지방은 작은 나라들로 나누어져 있어, 지금의 김해(경상남도)에 있던 임나라는 나라가 중심이었기에, 임나라고 불립니다. 천황은 미코토모치라는 관리를 파견하시어, 이 지방을 다스리게 되고 여러 나라들은 모두 황실을 따라 여러 가지 공물을 바쳤습니다. (후략)

[해외의 정치] 진구(神功)황후가 신라를 정벌하고 나서 삼한 모두가 황위에 굴복했습니다. 대대의 천황은 임나와 같이 들었습니다. 신라와 백제에서는 견직물과 철 등을 시작으로 진귀한 물산을 조공품으로 바치고, 왕자가 와서 조정에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도 조공물을 바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사신이 지나에 왕래하는 것을 안내하기도 하였습니다. (후략)

29) 1941: 조선의 여러 나라들은 모두 조정에 공물을 보내고 왕래를 계속하고 있었기에, 매우 복잡한 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은 신라와 결합하여 백제를 공격하여, 부여의 도움을 함락시키고 국왕을 포로로 삼았습니다. 백제에서는 조정에 봉사하고 있던 왕자를 맞이들이고, 우리나라의 힘을 빌려 나라를 부흥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 조정에 청원을 하였습니다. (제37대) 사이메이(齊明)천황은 그 무렵 황태자로 삼았던 (제38대) 덴치(天智)천황과 의논하여 조선이 지나에 병합되는 것을 막고 삼한을 옛날처럼 부흥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원망에 응하여 친히 규슈에 행행하시어 군사를 백제에 보내시고, 왕자를 보내어 당의 군사를 치게 하셨습니다. 지금 부여신궁에 해외 정치의 초석을 놓으신 진구황후, 오진천황과 함께 사이메이천황, 덴치천황이 모셔져 있는 것은 이러한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후략)

1944: [백제의 바래] 당은 지나의 북쪽을 진압하기 위해 만주와 조선 지방에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라와 결합하여 백제를 쳐부수고, 부여를 함락시켜 국왕을 포로로 삼았습니다. 백제에서는 조정에 출사하고 있던 왕자 풍을 맞이들이 우리나라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회복하려는 세력이 나타나, 조정에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제37대 사이메이(齊明)천황은 그 무렵 황태자였던 제38대 덴치(天智)천황과 상의하여 조선 지방이 지나에 합해지는 것을 막고자, 또한 삼한을 옛날처럼 건사하고 싶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부탁을 들어주시기로 하고 친히 규슈에 행행 하시어 군대를 백제에 보내시게 되고, 왕자를 보내시어 당의 군사와 대적하게 했습니다. 사이메이천황은 곧이어 규슈의 행궁에서 돌아가시고, 백제는 내분에 휩싸여 적에게 멸망당했기 때문에, 덴치천황은 군대를

여기서 다루는 시기는 7세기말에 해당한다. 7세기말이란 중국의 위·진시대 이래의 오랜 기간의 분열기를 거치고 통일을 이룬 수와 당의 등장 이래 긴장하는 동방의 여러 나라의 명운을 건 시기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660년, 당과 신라의 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하고,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는 사정에 대해, 고대일본이 어떻게 대응해 나갔는가를 고대일본의 입장에 서서 서술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동란기라고 말해지는 혼돈의 시기에 당시의 일본이 취한 행동은 옛 백제 땅에 구원군을 파견하여 당과 신라군과 교전하고 있는데, 이는 고대일본이 예전에 자신의 땅으로 하고 있던 옛 땅을 다시 수복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실은 당나라군과 신라군에 의해 패전을 당한 것이지만, 전쟁에서 패전한 것은 삭제하고 백제가 내분에 의해 서로 싸우다 무너졌기에 할 수 없이 다시 귀환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또한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에 따라 발생한 각국의 유민들은 일본으로 건너오지 않을 수 없는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부여신궁에 해외의 정치의 초석을 놓으신 진구황후, 오진천황과 함께 사이메이천황, 덴치천황이 모셔져 있는 것은 이러한 드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성심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고 하거나, “당은 군대를 두고 원래의 백제를 다스렸지만 백제인들은 황실의 은혜를 잊지 않고 대규모로 우리나라로 건너왔습니다.”고 하여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이 바다를 건너 고대일본에 안착한 것은, 예전 시대의 은덕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여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게다가 예전 시대의 은덕이라 함은 7세기말의 구원군 파견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4-6세기의 한반도를 고대일본의 식민지로 삼았다는 시대에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할 때 본 교과서의 노림수는 재삼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임은 물론이다.

철수시키셨습니다. 당에서는 장군을 두고 원래의 백제 땅을 다스렸는데, 백제인들은 황실의 은혜에 감응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흘러왔습니다.

충청남도 부여신궁은 해외의 정치의 근간을 강화하신 진구(神功)황후, 오진(応神)천황과 함께 사이메이천황, 덴치천황을 모시는 신궁입니다. (후략)

④제도의 정비(41)/일본의 번영(44)³⁰⁾

이 시기는 8세기의 문화에 대한 언급과 신라와 발해에 관한 내용이다. 문화에 대한 키워드는 수도 서울의 장엄함, 동대사라는 절과 국분사, 그리고 보물창고 정창원 등등이다. 그리고 신라와 발해는 당나라의 문화를 배운 것으로 번성은 하였지만, 결국 고대일본에 조공하는 이등국가라는 서술이다.

다음으로는 외국이라는 타자 인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①황국의 목표³¹⁾

앞에서 [황국의 목표]라는 단원은 1940년대 현재의 일본이 목표로 하는 가치와 이상을 나열한 것이기에 한반도 관련 기사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그런데 외국이라는 타자인식의 면에서는 1944년의 [초등국사]에는 여러 외국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로부터 결국, 1940년대 중반 일본이 당면한 현재적 목표가 외국으로의 진출이었다는 게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겠다.

②황실의 은혜³²⁾

앞과는 반대로 1941년의 [황실의 은혜]에서만 한반도를 제외한 외국에 대한 왕래와 교류의 기술이 보인다. 이도 역시 앞에서 본대로 1944년의 [황국의 목표]에서 나온 외국 관련 기사가 당시의 현재적 의미라면, 이번 1941년의 [황실의 은혜]에서 보이는 외국의 관련 기술도 거의 대동소이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 30) 1941; 당과의 교류와 신라와의 왕래가 계속되고, 나아가 쇼무(聖武)천황 때부터는 만주의 발해에서도 공물을 바치고 왕래하게 되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새로운 문화가 전해져 서울은 번성하고 세계 문화의 큰 중심이 되어 번영하고, 신라와 발해의 서울도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1944; [문화의 보고] 쇼무천황은 더욱 지나의 진전된 문화를 받아들여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국분사를 두고 나라를 지키게 했던 것도, 동대사를 세워 대불을 두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평성경은 당의 서울과 똑같이 화려하고 번성했습니다. 지방마다 둔 국분사는 지방 개발의 중심이 되고, 황실의 은혜가 퍼져나갔습니다.
- 31) 1944; 쇼와18년은 대동아전쟁이 일어난 지 3년째에 해당하므로 대동아에 새로운 질서를 건설하려는 기초가 점차 굳게 되었습니다. 이해 11월에는 대동아회의가 처음으로 우리 도쿄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신질서의 건설을 목표로 힘을 합쳐 싸우고 있는 동아시아의 나라들이 서로 결의를 굳건히 하는 회의로서,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중화민국, 타이, 만주, 필리핀, 미얀마의 6개국의 대표가 참가했습니다.
- 32) 1941; 나중에는 유럽과 미국 등의 나라와도 왕래가 열려 세계의 우수한 바를 수입하여, 훌륭한 문화가 만들어져 국운이 융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지금은 황실의 은혜가 동아의 각지에 퍼져나가게 되고, 황실의 위엄이 점차 먼 곳까지 미치어 우리나라는 해가 갈수록 번영해 갑니다.

③해외의 정치³³⁾

양자 모두 동아와의 교류는 지나를 중심으로 하는데, 그 교류의 영역이 중아시아, 인도, 이란을 넘나든 결과 불교와 지나, 더욱 구체적으로는 한의 문화가 고대일본에까지 미치게 되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 동아의 범위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쉬운 지나를 넘어, 인도는 물론이고 중앙아시아의 이란까지 광폭으로 확산시켜 사고하게 하려는 의지가 읽힌다.

④나라의 교류(41)³⁴⁾/나라의 시작(44)³⁵⁾

수나라에 보낸 국서, “해 뜨는 곳의 천자가 해 지는 곳의 천자에게 보낸다.”를

33) 1941; 동아 각지의 왕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나문화의 흐름이 넓어지고, 우리나라에도 수입되어 온 세상이 진보되었습니다. 지나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발전된 지역의 하나로, 지금부터 5천 년 전에 황하 유역에서 문명의 빛이 퍼져나가 점차 양자강 유역에 미쳤습니다. 그 위에 주위 각지에서 발생한 문화를 도입하여 발전해왔습니다. 처음 지나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곧 진은 멸망하고, 한이 일어나 4백년 남짓 번성하여 멀리 중앙아시아에서 이란과 인도를 시작으로 더 서쪽까지 해륙의 왕래길이 열려 불교 등이 수입되었기 때문에 지나의 문화는 더욱 발달되었습니다. (후략)

1944; [한과의 왕래] 그 무렵, 평안남도/북도에서 남만주에 걸쳐 지나인이 대량으로 이주하여 평양(평안남도) 근방을 중심으로 하여 점차 발전해 나갔습니다. 이어 지나에 한이라는 나라가 생기자, 이 지방에 세력을 넓혀 낙랑군을 두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지방에 가는 일이 많고, 한의 서울에도 왕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나문화의 유입] 동아의 왕래가 열린 지방 중의 하나이며, 지금부터 5천 년 전에 황화 유역에서 지나문화의 원천이 일어나 점차 양자강의 유역으로 퍼져갔습니다. 그 위에 주위의 각지에서 일어난 문화를 수입하여 발전해나갔습니다. (후략)

34) 1941; 우리나라와 지나는 일찍부터 왕래를 하고 있었지만, 나라의 교류는 스이코(推古)천황대에 시작했습니다. 천황은 수의 문화가 매우 진전된 것이었기에 이를 도입하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노노 이모코(小野妹子) 등을 사자로 골라 수에 파견하고 교류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의 시작입니다. 천황은 이때 수에 보낸 편지에 ‘해 뜨는 곳의 천자가 글을 해 지는 곳의 천자에게 보내니 평안하시길’, 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나에서는 예부터 자신을 중국 또는 중화라고 불러, 세계의 중심에서 가장 발달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하늘의 명을 받아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을 천자라고 하여 주위의 나라들은 모두 속국처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후략)

35) 1944; [해 뜨는 곳의 천자] 제33대 스이코천황은 수가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던 지나를 통일하고 문화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를 수입하기 위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노노 이모코 등을 수에 보내시어, 나라 간의 교류를 여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의 시작입니다.

이때 우리나라로부터 보낸 국서의 모두에, “해 뜨는 곳의 천자 글을 해 지는 곳의 천자에게 보내니 안녕하신지”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빛나는 해가 뜨는 모습에 빚대어 나라의 힘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나에서는 예부터 자신의 나라를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해 중국 또는 중화라고 부르고, 문화가 발전해 있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하늘의 명령을 받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천자라고 하여, 주위의 나라들을 모두 속국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대등한 나라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유달리 수는 세력이 강성해 속국이 되어 왕래하는 나라가 많았습니다. (후략)

금과옥조처럼 해석해 수와 대등한 고대일본의 모습을 강조한다. 즉, 그렇게 문화적으로 뛰어난 수나라와 대등한 증거인 셈이다. 게다가 수는 세계의 중심인데, 그 중심과 대등한 것이니, 고대일본의 모습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⑤제도의 정비(41)³⁶⁾/일본의 번영(44)³⁷⁾

이 단원은 두 책 공히, 국내의 이민족에 대한 중앙지배의 확대와 강화를 역설하고 있다. 고대일본의 북쪽과 남쪽에는 에미시와 하야토라고 불리는 이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중앙의 황위와 은덕이 확산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특히 남쪽의 하야토가 사는 지금의 가고시마현의 남부에서 류큐까지 그 시선을 확장하고 있다.

그런데 후자의 [초등국사]는 아라비아, 인도, 에스파냐, 지중해, 홍해, 인도양, 동인도라는 고대일본의 설명에 그다지 필요치 않은 부분까지 애써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후자의 설명의 의도는 고대일본의 교역과 진출이 지금의 세계적 수준까지 미치고 있었음의 강조일 것이다.

36) 1941: 제도가 정비되어 감에 따라 황위가 날이 갈수록 멀리까지 빛나고, 북은 지금의 오우(奥羽)지방, 남은 류큐(琉球)열도까지 미치고, 국토의 기초가 더욱 굳건히 되었습니다. 오우지방의 에미시에게는 아직 황위가 미치지 않는 곳도 많았기 때문에 고토쿠(孝德)천황은 이를 완전히 정복하겠다고 생각하시고는 지금의 니이가타(新潟)현에 그 근간이 되는 성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사이메이천황은 아베노 히라부(阿倍比羅夫)를 보내시어, 수군을 이끌고 종종 일본해의 연안 지방을 정벌하셨습니다. 히라부는 에미시를 복속시킨 것만이 아니고, 북해도로 건너가고 더 북쪽으로까지 황위를 빛나게 했습니다. 가라후토(樺太)와 북해도가 우리나라의 국토가 되는 근거는 지금부터 1300년 전의 일입니다. 그 후 조정에서는 오우지방에 신사를 세우고 불교를 포교하며 에미시를 교화하여, 복속된 자에게는 임무와 자리를 주고, 종자를 내리고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랫동안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었는데, (제 50대) 간무(桓武)천황 대에 사카노우에노 다무라마로(坂上田村麻呂)가 에미시를 확실히 정벌했습니다. 또한 규슈의 남부와 류큐열도의 근방에도 아직 복속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스이코천황 때부터는 지금의 가고시마(鹿児島)현의 남부와 오키나와(沖縄)현의 섬들에서 황실에 복속하여 왕래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류큐열도가 우리나라의 국토가 되는 시초이기도 합니다.

37) 1944: [오야시마구니(大八洲國)의 통일] '다이카(大化)의 개신' 무렵은 오야시마구니 중에서도 도읍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는 아직 완전히 황위에 복속되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북쪽은 동북지방과 북북지방의 에미시, 남쪽은 규슈 남부의 하야토입니다. (후략)
[세계와의 왕래] 당은 한때 동으로는 조선반도와 만주, 북으로는 내외 몽고, 서로는 중앙아시아, 남으로는 인도지나반도까지 세력을 뻗쳐 주위 각지에서 일어난 학문과 종교, 미술과 공예 등을 받아들여 지나의 문화가 매우 발달했습니다. 같은 무렵 아라비아가 동은 인도에서 서는 지금의 에스파냐까지 세력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는 크게 발달되어 그 중에서도 지금의 학문의 근간을 연 것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산수할 때 사용하는 숫자는 아라비아에서 유럽에 전해지고, 나중에 우리나라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후략)

이상과 같이 6학년 [초등국사]는, 5학년 [초등국사]의 특성과 체제적 구성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6학년용 초등국사(1941)과 초등국사(1944)는 다음의 두 가지 면에서 그 내용 변화가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전자와 후자 사이에는 한반도 관련 서술의 차가 보이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왜냐하면 몇 년간 계속하고 있는 본 교과서 분석 작업의 핵심이 조선총독부교과서에 보이는 한반도에 관한 인식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해외’와 ‘동아’라는 밖을 응시하는 시각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었다고 하는 점이다. 이는 다른 말로 일본이라는 자아와 밖이라는 타자를 강하게 인식한 결과일 것이다. 나아가 일본이 ‘제국’을 지향하고 외국에 대한 다발성 침략을 ‘해외’ 혹은 ‘동아’라고 타자화하면서, 침략에 다름 아닌 밖으로의 진출을 ‘대동아공영’이라는 미명 하에 포장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⁸⁾

V. 맺음말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6학년용 초등국사(1941)과 초등국사(1944)는 한반도 관련 서술에서 차가 보인다. 이는 몇 년간 계속하고 있는 본 교과서 분석 작업의 핵심이 조선총독부교과서에 보이는 한반도에 관한 인식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해외’와 ‘동아’라는 밖을 응시하는 시각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었는데, 이는 다른 말로 일본이 ‘제국’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외국에 대한 침략을 ‘해외’ 혹은 ‘동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동아공영’을 주장하는 미사여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요컨대 이번의 교과서 분석 작업은 앞으로의 조선총독부 초등역사교과서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위한 도구적 작업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국정역사교과서, 검정역사교과서에 대한 일련의 분석 작업으로의 의미를 갖는다.

한편 2009년부터 5년간 진행된 조선총독부역사교과서에 관한 작업은,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역사교과서를 시간 순으로 번역하고 분석하였다는 의미를 갖는

38) 자료집 『조선총독부역사교과서분석』V(2013), 동북아역사재단 pp19-38 참조

다. 당시 일본의 역사교육에서 조선이란 어떠한 존재로 자리매김 되고 있었는지, 무엇을 목표로 하여 무엇을 왜곡시켰는지가 명료하게 나타난다. 더불어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한일 간의 역사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역사교과서가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역사교과서 파동에 대처할 수 있는 기초적 작업인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상의 작업을 통해 해방 70년임에도 조선총독부역사교과서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 아직까지 미진한 현상을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역사교과서문제에 진전된 시각을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바람은 ‘전후 70년’을 맞이하는 일본에도 요구되는 공통 과제일 것이다. 1945년 이후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히로히토 천황의 ‘성단(聖斷)’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1945년을 ‘패전’ 혹은 ‘종전’으로 볼 수도 있고, 그 이전과의 ‘단절’ 혹은 ‘연속’을 이야기 할 수도 있다. 또한 아베 정권의 3기 내각출범(2014년 12월 24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이는 역사교과서의 문제는 일본인에게도 완전한 해방의 도래 여부를 묻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참고문헌

- 장신 편(2005), 『조선총독부교과서총서(역사편)』1-6권, 청운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편(2005),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1-6권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편(2010),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1-7권
한국사연구회/한일관계사학회 편(2008), 『경인한일관계총서28『일본 역사서의 왜곡과 진실』, 경인문화사
한일관계사학회 편(2010), 『경인한일관계총서42『전환기 일본교과서 문제의 諸相』, 경인문화사
이종국(2008), 『한국의 교과서 변천사-근대 교과서 100년, 다시 새 세기를 넘어-』, 대한교과서주식회사
현명철(2011), 『한일 역사 갈등의 뿌리를 찾아서-한일관계의 변화와 총독부 간행 조선사 기술 검토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40
君島和彦(1996), 『教科書思想—日本と韓国の近現代史』, すずさわ書店
歴史教育者協議会 編(1997), 『歴史教育50年のあゆみと課題』, 未来社
小森陽一 외 編(2001), 『歴史教科書何か問題か—徹底検証Q&A—』, 岩波書店
中村哲(2004), 『東アジアの歴史教科書はどう書かれているか-日・中・韓・台の歴史教科書の比較から』, 日本評論社
纈纈厚(2009), 『私たちの戦争責任—「昭和」初期20年と「平成」期20年の歴史的考察』, 凱風社, 2009(→김경옥 역(2013), 『우리들의 전쟁책임』, 제이앤씨)
二谷貞夫 외 (2010), 『日韓で考える歴史教育—教科書比較とともに—』, 明石書店

- ❖ 투고일 : 2015.01.05
- ❖ 심사완료일 : 2015.02.04
- ❖ 게재확정일 : 2015.02.09

Abstract

조선총독부 초등국사교과서의 고대사 서술에 대한 일고찰

송완범

금년은 광복과 해방 또는 국교정상화의 어느 측면에서도 주시할만한 해이다. 단, 역사교과서문제를 생각할 때 국교정상화보다는 진정한 의미의 해방을 맞고 있는지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

다시 말해, 해방 70년을 맞아 역사교과서문제에 있어 식민지배의 심장부였던 조선총독부가 구현하려 했던 조선총독부역사교과서의 실상과 내포된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파헤치고 있는지, 더 나아가 극복해내고 있는지, 썩 자신이 없다. 근래의 우리 사회의 역사에 대한 논의 수준은 아직 완전한 해방 단계에 까지 미치고 있다고 자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편 역사교과서에 얽힌 한국 측의 바람은 '전후 70년'을 맞이하는 일본에도 요구되는 공통된 과제일 것이다. 1945년 이후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히로히토 천황의 '성단'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1945년을 '패전' 혹은 '종전'으로 볼 수도 있고, 그 이전과의 '단절' 혹은 '연속'을 이야기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베 신조정권의 3기 내각출범(2014년 12월 24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이는 역사교과서의 문제는 일본인에게도 완전한 해방의 도래 여부를 묻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Key Words : 2015년, 한일국교정상화, 교과서문제, 조선총독부역사교과서, 해방

Abstract

An Analysis on the Description of Ancient History
in Elementary School History Textbooks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Song, Whan-bhum

The year 2015 is a noteworthy year from the independence, liberation, and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aspects. However, the author of this paper asks whether the true sense of liberation is embraced, rather than just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when it comes to the history textbook issue.

In other words, the author is not confident about whether the Korean people, in memory of the 70th anniversary of liberation, properly identify with the truth and implied intention of th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which was the core of Japanese colonial rule, in the history textbook issue, and also whether we are overcoming such an issue. The reason is that the author thinks that our society has yet to embrace complete liberation in terms of a discussion level on history.

The desires of Korea regarding history textbooks may be the common task required within Japan when it embraces the 70th anniversary of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as well. Japan may regard 1945 as the year of defeat in the war or as the year of the end of the war, depending on how they understand the sacred decision of Japanese Emperor Hirohito in Japan from 1945 to the present, or they may talk about severance or succession.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history textbook issue in the launching process of the Shinzo Abe regime's third cabinet (December 24, 2014) seems to ask the Japanese whether complete liberation has arrived.

Key Words : 2015,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Textbook issue, History textbook of th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Liberation